



미국을 흔드는 “Shake Shack 고추장 버거,”

아주 오래 전, 한국인에게 미국은 동경과 부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보면 대한민국이 극도로 궁핍했던 1950년대에는 ‘미제 틀린 스테이크도 아까워 못 버리고, 집안에 미제 틀린 포장지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부리가 넓혀 흘렀다’라는 지금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어릴 때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돼버렸을 만큼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만화탄을 오가는 출퇴근 승용차의 라디오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이 팬스 유적에 관심 없는 사람조차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흘러나오고, 한국인의 이별사를 다룬 영화는 미국의 각종 영화제에서 이심 땀 관망이라는 등도 보듯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현대사가 미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사로 잡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입입니다. 미국인의 입맛 사로잡기, 잘 되고 있을까? 자문자답을 해서 좀 걱정됩니다만, 입맛 사로잡기 역시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인들의 농수산물 수출이 전년 30% 증가한 실적을 넘어선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미국 식품화의 상징처럼 돼버린 ‘한국식 버거’가 ‘Korean-style’을 추구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초, 미국의 셰이크 Shack(Shake Shack) 버거 체인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버거, 한국식 치킨 바이스와 한국식 고추장 감자 튀김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K-치킨 버거는 한국식 양념치킨을, 고추장 치킨 바이스와 감자튀김은 고추장 마요소스를 사용했다는데, 라면 열매나 한국식알지..., 궁극한 건 못 하는, 뉴욕지사에서 직접 먹어 봤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버거는 함께가 뿌려진 고추장 양념치킨과 함께 백김치를 이용한 콜슬로(coleslaw)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Shake Shack의 요리 감독인 마크 로사티(Mark Rosati)에 따르면 2015년 서울에서 처음 맛본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에서 이 메뉴를 떠올렸고 정식 메뉴 개발을 위해 한국쪽 파트너를 찾고 협력해 왔다고 합니다.

이 메뉴를 맛본 현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담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화제



가 되기도 했는데, 현지인들의 입맛에 초점을 맞춘 탓인지, 특히 한국인의 미각으로는 어떤 포인트에서 한국적인 맛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살짝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치킨 바이스와 감자 튀김에 찍어 먹는 고추장 마요소스 또한 현지인들의 입맛에 초점을 맞춰서인지, 고추장만의 특색있는 맛을 배

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패스트푸드인 감이 있는 맛임에도 불구하고, Shake Shack이 굳이 ‘Korean Style’을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하는 까닭은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Korean Food’가 매력적인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Shake Shack의 이번 신메뉴 개발이 되는 고추장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가는 중인데, 과거 고추장은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와 함께하며, 한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한국인들에 의해 소비되는 대표적 한국 식품이었지만 2000년대에 이르면서 현지인들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전국 레스토랑 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조사에 따르면 고추장은 에스닉(Ethnic) 조미료 2위로 소시지와 함께 핫 트렌드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해 미국인들의 고추장 선호도 25%가 증가한 1천3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식 치킨의 미국 시장 진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호텔 레스토랑에서 낯설지 않게 한국식 치킨 메뉴가 소개되고 있고, BBQ, 치킨집, 양념집 등 한국 유명 체인들이 꾸준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곧바로 국면을 맞아 널리 보급된 배달업을 통해 이제는 동부 도시 지역에서는 언제든 손쉽게 한국식 치킨을 맛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네 치킨의 경우는 캐나다

매장을 런칭하면서 미국에 이어 북미 시장 전역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미국 식품시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에스닉 푸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Shake Shack 체인의 이번 메뉴 출시를 계기로 보다 많은 미국의 유명 식품 브랜드들이 ‘Korean Style’을 그들 비장의 무기로 활용할 날들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1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버거
- 2 백김치 콜슬로(coleslaw)
- 3 치킨 바이스 + 고추장 마요소스